

고은 불교대하소설

꿈속의 그들 ②

그 심술국은 농부는 아주 구리빛 근육으로 다져진 40세가 넘는 사내였는데 딱딱 말라붙은 본체 이외에도 두 여자를 소실로 삼아 낮에는 싹쓸 부려먹고 밤에는 번갈아가며 백경의 노래가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엔 저 뒷쪽 강 기슭에서 강물의 범람으로 부모와 집을 잃은 고아 출신의 소녀가 그곳에 이르러 농부네 오이 하나를 따 먹다가 불잡혀와서 그 값으로 농부는 소녀의 첫 사내가 된 것이었다.

앞으로 하루에 밥 두 끼니를 먹어 준다는 조건으로 그 세번째 어린 소실도 낮에는 앞에 후사당하고 밤에는 한동안 다른 소실의 방에 가지 않는 그 농부에게 늘어붙어 있어야 하였다.

바로 이 소녀의 뱃속에 안좌한 농부의 씨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불이와 합두가 돈황 막고굴에서 지내는 동안 그곳에 산재를 정한 사막의 패강도들에 의해서 노예나 다름없는 시종을 들고 있었다. 다행히 불이는 합두를 남장(男裝)으로 속여서 주방의 요리사로 일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곳에서 합두가 여자로 알려지는 날 그녀는 그 거칠기 짝이 없는 사내들의 책육이나 들어주는 대상 밖에 될 수 없었다.

우리의 꿈 속에는 합두가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번철(鐵鑊)을 뒤집어 얹는 일을 하는 풍경이 역력하게 보였다. 그러자 하면 불이는 그의 시(詩)의 속업과는 달리 병든 말을 치료하는 마굿간의 일을 돌보는데 우너가 본 풍경은 병든 말이 더 이상 회복할 기량이 없다는 마굿간 우우머리의 관정을 받은 말을 찾아가 데리고 가서 사막 한 복판에 놓아두고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혼자 죽어가야 하는 그 사막을 떠나면서 말의 신체나 그 자신의 신체를 함께 생각하며 눈물짓고 있다가 멀리서 한 배의 말발굽소리와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에 놀라 재빨리 그의 처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슬픔이라는 것도 슬퍼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침승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일도 그럴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굿간의 한 지저분한 일꾼이 된 불이는 그가 다른 생(生)에서 추구한 고상한 사나 정감있는 문장 따위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겉껍이 얼굴에 삼거지의 낡은 옷이었다. 그런 옷에 말뚝이 묻어 있었다.

굴이 그런 못차림의 나날을 바깥 생각도 없었다. 어쩌다가 분두덩이 뒤편에 겨진 상태에서 먹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 합두를 슬쩍 만나 양의 고기 한 점을 얻어먹고 나올 뿐이었다.

그들은 전쟁의 모든 풍류있는 일들이 어찌되고 이 막고굴의 인연 끝에 그로록 처참하게 되었는데 그를 스스로 새겨볼 수도 없었다.

우너는 꿈 속에서 그런 도반들의 괴로운 모습을 보고 영연 울다가 꿈을 쫓고 싶었지만 아니었다. 낯익은 어찌 되었을까. 무전과 파현은

또 어찌 되었을까. 수원은, 수원은 어찌 되었을까. 끝내 우너는 인담에게 꿈 속의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욕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받는 운회의 사정이 그런 참담한 것이라면 굴이 이곳의 수행이 이대로 지속될 명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른 세상에서 그런 대우로 살아가야 하는 과보라면 무욕도에서 떠난 뒤의 세상이 계몽되거나 어리석었거나 한 깨달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무욕도의 정진이 이루어 놓은 어떤 힘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닌가. 우너는 그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녀가 꿈 속에서 옛 도반들의 괴로운 모습이나 볼 수 있는 수행 밖의 일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바른 행(正行)이 아니었다.

인담이 그녀의 말을 듣고난 뒤 말하였다. 마치 소가 맞은 풀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선 그런 꿈같은 것을 없앨 일입니다. 어찌 도인이 꿈한테 좌우 됩니까?”

“내가 샅(衫)되어서 그럴까요?”

“정(正)이고 사(邪)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너도인의 마음이 좀 어지러워서일 것이오.”

“어찌하면 좋지요?”

“어디 육지에라도 한 바퀴 돌고 오셨오. 활활 나비시늬를 하면 그런 꿈조각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오.”

“함께 갈 수 없겠습니까?”

“내가 간다면... 이번에는 혼자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너도인도 꽤 달라졌구려.”

“.....”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도 더 이 도량에 길들여져야 하고...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씩이라도 더 익혀주어야 할 때인지라... 이곳을 떠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

다만 대매가 바위로 올라가 쳐진 곳에 가서 일 끝의 목욕을 할 때 거기에 갔다가 놀란 소석행자가 며칠동안이나 대매와 말을 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처지가 된 일 밖에는 이곳의 파도 소리는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너가 아무리 그녀 자신의 꿈을 사할하지만 그녀의 꿈은 다시 그녀의 밤을 수놓고 있었다.

심지어는 꿈 속에서 꿈을 풀리치는 그의 자신이 끝내는 꿈 속에서 풀리치는 일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었다. 꿈이란 무엇인가. 짐승이나 내생의 거울 한 폭인가. 아니면 아무런 소리도 없는 메아리인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림자인가.

꿈이란 말이 있을진대 꿈이 있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어느날 꿈 속에서 우너는 천재(天羅)였다. 말하자면 여자의 성기가 없는 여자인 것이다. 그녀는 오줌을 참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머는 참을 수 없어서 고개너

“강도들의 노예
늙은 꿈...
무욕도 도반들의
운회는
참담 하였다”

세를 보이면 상대방이 달려들어 앞발로 쥐어박고 뒷발로 치는 것이었다. 벌써 새로 침범한 꿈은 이빨 두어개가 뽑혀져 나갔다. 그것은 늙은 꿈 무전이 훨씬 사납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을 낮밤이 지나자 끝내 늙은 무전은 뱀구리에 무지막지 한 한대를 얻어맞은 뒤 벌렁 나지빠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강한 지의 위엄이 아니라 패배자의 비통한 체념이었던가. 그는 한번 더 불곰의 공격을 받고 거의 죽어버린 상태로 네 다리를 쭉 뻗어 굳어졌다.

불곰이 지치는 했지만 그 늙은 꿈을 살피더니 저 산꼭대기로 달려올라가 가장 큰 소리를 질러 온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이튿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지의 선포였다. 모든 짐승이나 나무와 풀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까지도 소리를 죽였다.

불곰의 우렁찬 질규는 몇번 더 계속되었다. 바로 그 소리에 정신이 살아난 늙은 꿈 무전은 가개소로 재 죽어가던 몸을 추

“도인이 어찌 꿈에 좌우 됩니까” “내가 샅되어서 그럴까요”

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간 뒤에도 우너는 제 시간에 가부좌로 앉아서 아무런 일도 없는 평상심 그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두 사람의 얘기로 무엇 하나 해결된 일은 없으나 그 얘기가 자제만으로 해결할 일이 흐지부지된 것 같았다.
인담도 인담대로 그의 팔과 다리처럼 익숙한 정진시간을 자릴 따름이었다. 이런 관이라 대매나 소석행자들도 점점 아른 곳이 나아가는 환자처럼 이 무욕도의 생활에 감하지 않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이 막막한 삶에 상륙했을 때의 본능적인 두려움은 이 삶의 모든 곳과 바다를 두리번거리며 확인하는 일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없었다. 지난번의 천둥번개에도 정작 그들은 색다른 긴장 뿐이었지 그것이 어떤 공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머 풀술으로 들어가 오줌을 누려고 한쪽 그 오줌이 나올 구멍이 없었다.
그녀는 그 때문에 놀라서 마구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올 입이 없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그 꿈을 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온몸이 진 땀으로 덮여있었다. 방의 여기저기를 꿈 속에서 헤매는지 문밖을 잠그지 않은채 담은 것이 발갈에 채어 찬바람과 파도소리가 방안을 채워 그녀를 끝내 감기가 들어버렸다.

감기는 며칠동안 계속되었다. 그 감기를 앓는 동안 낮에도 비몽사몽으로 옛 도반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무전은 바다에서 사는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육지의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는 꿈이었던 것이다. 아주 늙은 꿈이었다.

그런데 다른 꿈과의 영역(領域)을 다루는 일을 몇달동안 계속하고 있었다. 어떤 지역도 아무런 짐승이나 나타나

그곳을 차지하지 못했다. 같은 종류의 짐승일지라도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잔짐승이 많이 있고 나무도 딱딱한 그 영역은 오랫동안 늙은 꿈 무전의 영역이어서 어떤 놈도 넘보지 못할 곳이었다.

한번 제 오줌이나 땀새를 똥혀 놓으면 그 경계를 넘어 침범하는 짐승은 있을 수 없다. 한번 큰소리로 울부짖어 놓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은 아무것도 다가올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엔 나타난 불곰 한놈이 감히 무전에게 한두번 대들어 보았고 이어서 그런 시합 끝에 정식으로 무전의 경계를 넘어 들어왔다.

그리하여 두 꿈은 사슴도 넘겨 반딧불 가리지 않고 물어뜯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마구 들어올려서 내던지는 격투를 이어갔다.

양쪽 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지쳤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숨차서 조금이라도 약

스레 땅바닥을 기다시피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의 영역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의 영역까지 기어가서 그 경계에 닿았을 때 이번에는 다른 짐승들이 때를 이루어 죽기 직전의 늙은 무전을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한동안이 흘렀다. 늙은 무전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그리고 네 다리를 쭉 뻗어 파르르 떠 뒤 그대로 시체가 되었다.

그때부터 짐승들이 그 꿈의 시체를 물어먹기 시작하였다. 먼저 서로 다투며 파먹는 곳은 내장 부위였다. 드디어 내장 속이 푹 터지더니 짐승들의 대가리가 그곳에 치박혀지는 것이었다.

“무전님!”

하고 외치던 우너가 그 험악한 꿈을 썼다. 무욕도의 밤은 언제나 파도소리 밖에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림·조향숙

새 영양물질 발명! 생엿, 그냥 엿이 아닙니다. 동양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건강보조 식품계의 대혁명



장원 생엿!
이런분께 소개합니다.

21세기 건강식품

- ☆장원... 으뜸 일등 제일
- ☆생엿... 생약 재료 엿처럼 만든것
- ☆건강... 정원 ☆장수... 정원
- ☆미용... 정원 ☆행복... 정원
- ☆공부... 정원

바다의 나트륨성분과 육지의 칼륨성분을 추출한, 독특한 영양물질 탄생!

- ▶ 인체의 건강은 음성원소군(대표자 칼륨)과 양성원소군(대표자 나트륨) K/Na의 조화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 ▶ 인체의 질병은 체질의 산성화로 냉(冷)한데에 있습니다.
- ▶ 장원생엿은 두원소의 비율을 조절하는 영양식품으로 100%순수 식물로 구성된 한방식품입니다.

1개월분 표준가격 : 280,000원

- ◎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 남녀 40세 후반부터 생기는 여러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
- 얼굴색이 누렇게 피부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 겹버섯이 생기고 원인을 두드러기가 자주 일어난다.
- ◎ 뼈가 시리고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 ◎ 산후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 ◎ 과다 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피로에 지친 수험생!
-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여러분!

연구개발원
인강당 생약 연구원
제조원: 남광산업주식회사
판매원: 불교건강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2동 384의 10

상담실 (051) 465-5100

☎전화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하여 드립니다